

학력 자본 비감

김강석/SBS보도국 사회1부 차장

이 잡지가 나올 때 쯤에도 논술과 면접 등 대학 입학 전형이 계속되고 있을 것이다.

— 지난 한해는 대입 수시 모집이라고 연중 입시가 진행됐다.

교육에 관한 한 모두가 짜증과 분노 이런 단어 외에는 다른 연상을 하기 어려운 것 같다. 급기야는 이해찬 전 장관이 망쳤네, 시도 때도 없는 조변 석개 정책이 백년대계를 흔들었네 하는 탄식으로 이어질 것이고 '영터리 교육제도 이대로 안된다'로 결론날 것이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인 부르디외는 학력자본이라는 용어를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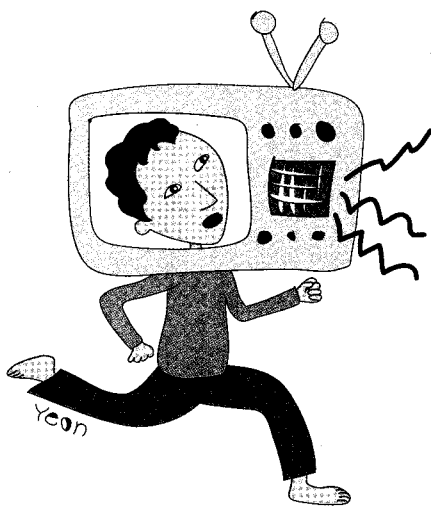
자본주의하에서 학력을 사회적 기득권과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투자대상 내지는 자본으로 이해한 것이다. 이런 개념은 우리사회에 가장 잘 맞아 들어가는 것 같다.

학력자본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장이 바로 교육현장이고 그 전사들은 우리의 아이들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으고 있는 「교육제도 이대로 안된다」는 결코 해법을 찾지 못할 것이다. 어떤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학력자본 사회체제가 바뀌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일 것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대학입시가 달랑 영어 한과목이 되더라도 지금과 같은 과열 경쟁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대졸과 고졸 간의 차별 대우는 물론 명문대와 비명문대, 지방대 간의 취업 차별, 임금 격차, 학력에 따른 사회적 차별 인식, 뿌리깊은 학맥 등등이 사그러들지 않는 한 교육전쟁은 멈추지 않을 것임을 감히 단언한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자본주의 사회의 교육이 우리보다 나은 것은 물론 교육제도에서 찾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런 학력 차별이 덜하다는 데 있다. 명문대 출신이 존경을 받지만 비명문대 출신이거나 고졸이라고 비웃거나 멸시하지 않는 사회적 포용력과 기회 균등주의가 교육을 실용과 창의력 위주로 끌고가 나라간 경쟁에서 결국엔 우리를 따돌리는 것이다.

몇 년 사이 쓰러진 국내 최대 그룹들을 보자. 모 그룹은 소그룹 회장들이 출신 고교별, 대학별로 파벌을 형성해 이른바 왕자의 난을 일으키는 등 갖가지 추태를 부리다 급기야는 그룹 해체와 일부 계열사의 부도로 이어졌다.

다른 그룹을 보자. 이미 오래전 학력주의와 지역주의를 없애고 비교적 공정한 공채제도와 착실한 인력관리 그리고 철저한 실적주의를 추구해 오늘날 최대 그룹으로 살아 남았다. 물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얘기로 들리겠지만 이런 학력이나 학벌주의 문제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외국 언론이 비웃었듯이 고교시절 몇 년간의 공부로 평생을 낙인 찍게 만드는 사회는 사람 사는 곳이 아니다. 이제는 교육제도에 대한 개선도 개선이지만 학력에 의한 모든 차별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지 정말 꼼꼼히 따져 끊임없이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식으로 하나씩 실타래를 풀어가야 할 것이다. PPFK